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사랑과 희망 전해”

대명설악리조트 적십자봉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 2004년 설립 · 회원 37명

대명설악리조트 적십자 봉사회(회장 이찬구)가 지난 25일 열린 제10회 고성군사회복지대회에서 최고상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대명설악리조트 적십자 봉사회는 대명복지재단의 지원 아래 대명설악리조트 직원 37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설립됐다.

대명설악리조트 적십자봉사회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홀로 지내 목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자식이 되어 등도 밀어주고 마사지도 해드리는 등 월 2회 이동목욕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장애와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체적인 불편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선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와 장판 교체, 쓰레기와 오폐물 수거 및 싱크대, 유리 등을 설치하는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매년 예산 200만 원을 마련해 5가구에 40만원씩 후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월 어버이 결연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온 대명설악리조트 적십자봉사회원들의 활동 모습.

구 8세대 중 1세대를 담당해 쌀과 라면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 및 청소년,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배달 및 가정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11월에는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어 어려운 이웃, 독거노인, 경로당 등에 김장김치를 나눠 주고 있다. 재난·재해에 대비한 자율방재 역량 강화, 산불예방홍

보 및 진화활동,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시 대민지원, 피해복구활동을 전개해 지역의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과 복구활동을 담당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매월 45만원을 들여 방과후 공부방에 라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10~15만원을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14세대에 정기후원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골프 유망주들에게 지원금 전달,

명절 긴급구호 물품전달, 저소득층 자녀 아쿠아월드 체험 및 급식봉사활동 지원,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지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협찬·후원 등 지역사회복지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대명설악리조트 적십자 봉사회 관계자는 “우리가 펼치고 있는 봉사활동을 누구에게 알려려고 한 것이 아닌데 외부에 알려져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부담스럽다”며 “고인이 된 서흥성 대명리

조트 창업주의 기업이익 사회환원의 정신을 이어받아 회원들 모두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훈훈한 정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나눔 문화 정착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사랑과 희망을 전해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김치 배달은 우리가 할게요”

속초해경, 속초시노인복지회관 주관 ‘사랑의 김장나눔’ 배달 맡아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는 지난 24일 속초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된 2011 김장나눔 효 플러스 겨울철 김장나눔 행사에 앞장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속초시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지역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자들이 정성들여 담긴 김치를 지역내 소외된 이웃을 찾아 각 가정을 방문하며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속초해경은 차량과 인력을 지원했고 각 소외계층의 가정을 돌며 사랑의 김장김치를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오전 10시에는 김홍희 속초해양경찰서장이 행사장을 직접 방문해 속초시 노인복지관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더욱 소



속초해양경찰서 김홍희 서장이 속초시노인복지관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외되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현혈, 연탄배달 등을 통해 이웃사랑 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광연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고성군협의회 신임 임종성 회장

“불황 겪는 지역업체 발전 노력”

신성조경개발 임종성 대표(54세, 사진)가 지난 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고성군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현재 21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는 대한전문건설 고성군 협의회는 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추진,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도모, 지역경제발전에 공헌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임종성 회장은 “회원들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가운데 대규모공사 참여와 하도급 수주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인의 도덕적 윤리의식을 고취시켜 계약관련 투명성,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회



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고성 출신으로 고성중·고를 졸업했으며, 고성녹색사랑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군 검도연합회장, 고성경찰서 보안협력위원 등을 맡고 있다.

가족은 부인 최인숙씨와 1남 2녀를 두고 있다.

원광연 기자